

## 창, 소통을 위한 기대감

화가 고현희의 회화적 작품의 형식에서 비춰지는 예술적 태도는 종이 위에 아쿠아렐(수채화 기법)로 오랜 시간을 축적해 온 내밀한 노력의 산물이다. 유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산뜻하고 싱그러운 맛과 농도에 따라 느껴지는 투명성의 변주가 수채화의 담백한 아름다움으로 이제 그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구축해 내고 있다.

혼합 재료로 완성된 작품은 수채화의 특징인 담백함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창작의 길을 적극 모색한다. 혼합 재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표현이 또 다른 영역을 보여 주며 두터운 질감을 바탕으로 바탕 질감을 거칠게 처리한 후 그 위에 담채로 얇게 칠하고 뿌리거나 자연스럽게 번지는 기법을 구사해 한 화면에 견고함과 부드러움의 표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고현희의 사물을 보는 시각은 빛이 물상에 닿았을 때 감지되는 색채 이미지를 포함해 그 물질의 질감과 그림자까지도 정밀하게 포착하며 치밀한 관찰력과 묘사력은 실제 이상으로 사실감을 보여 준다. 자주 등장하는 벽과 창문, 그림자도 단순히 현실세계를 넘어 묘한 페이스(동정과 연민, 애상, 비애감, 정념)를 담고 있는 작가의 내면 풍경이며 그림자에 어떤 이미지를 투영해 소통이라는 벽을 통과하고 느끼고 있는 듯하다.

우리의 일상엔 항상 벽을 보며 통과된 벽 뒤에는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그 벽은 함께 공유되는 사물이며 넘어야 할 과제다. 벽을 넘기 위한 무기는 서로 간의 소통이다. 그리고 창은 소통의 전제인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사실적 묘사와 더불어 객관적 대상 안에 포함된 내면과 감정을 드러내는 작가만의 고운 감성 언어로 기존 수채화 작가가 가진 기법과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조형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 마음의 창



물주기 / 116.8×91cm / mixed media



내 마음의 창 / 91×65.2cm / mix



**고현희**

예원예술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9회 및 아트페어 8회

대한민국수채화대전 대상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및 초대전 그룹전 400여 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한국수채화공모대전 심사위원 역임

나혜석미술대전 · 전북미술대전 · 행주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역임

현재 : 한국수채화협회, 고양미술협회 부지부장, 한국여류수채화가회, 묵우회,  
대한민국회화제, 서울아카데미회, 한국자연동인회 감사, 한국아외수채화가회,  
고양여성작가회, 서울미술협회 수채화 분과 이사, 전업미술가협회 수채화 분과 이사,  
대한민국수채화대전 운영이사, 일산미술인회, 대한민국수채화작가회

문의 : 02-725-9444



오래된 우정 / 100×50cm / watercolor